

# ‘발롱도르 22위’ 김민재, 아시아 올해의 국제선수상

## AFC 가맹국 선수 중 최고 손흥민이 세 차례 수상

아시아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26·바이에른 뮌헨)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연간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받았다. 김민재는 1일 카타르 도하의 카타르 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2 AFC 연간 시상식에서 올해의 국제선수상 주인공으로 발표했다. 국제선수상은 자국 리그를 떠나 해외 무대에서 뛰는 AFC 가맹국 선수 중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 이에게 주는 상으로, 김민재는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이 상을 받았다. 이전까지 손흥민(토트넘)만 총 세 차례(2015·2017·2019년) 수상한 바 있다. 김민재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에서 맹활약하다가 2022-2023시즌 이탈리아 나폴리로 옮겨 팀이 33년 만에 세리에A 우승을 차지하고 사상 처음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입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후엔 독일은 물론 유럽 축구를 통틀어서도 최고의 명문 클럽으로 꼽히는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곧장 주전 센터백으로 자리잡았다. 국가대표팀에선 한국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르는 데 큰 힘을 보탠 그는 다른 후보인 미토마 가오루(일본·브라이턴), 메디 타레미(이란·포르투)를 제치고 국제선수상을 거머쥐었다. 김민재는 전날 열린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시상식 발롱도르에선 아시아 수비수로는 처음으로 후보에 이름을 올려 투표에서 22위에 오르기도 했다. 22위는 지난해 손흥민의 11위에 이은 아시아 선수 역대 공동 2위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은 이날 AFC 시상식의 다른 부문에선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올해의 남자 선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렘 다우

사리(알힐랄), 여자 선수로는 호주의 샘 커(첼시)가 선정됐다. 다우사리는 소속팀 알힐랄에선 2021-2022시즌 리그 우승과 2022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등에 이바지했다. 커는 첼시에서 2022-2023시즌 잉글랜드 여자 슈퍼리그와 여자 FA컵 우승을 이끌었고, 올여름 여자 월드컵에선 호주 선수 A매치 최다 득점자로 올라선 뒤 현재는 총 68골을 기록 중이다. 올해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브론즈볼을 받은 이승원(강원)이 후보에 올랐던 올해의 남자 유스 선수 부문에선 일본의 마스키 구루(FC도쿄)가 수상자로 결정됐고, 여자 유스 선수로 일본의 하마노 마리카(첼시)가 뽑혔다. 올해의 남자 감독상은 일본 국가대표팀의 모리야스 하지메, 여자 감독상은 중국 여자 대표팀의 칭샤수이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김민재

# 이정후, SF·클리블랜드 등 영입전 벌일 듯

## 류현진 FA 35위 연봉 800만 달러 전망

자유계약선수(FA)인 원소 투수 류현진(36)이 연봉 800만 달러(약 108억원) 수준의 단기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현지 전망이 나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단장 출신 칼럼니스트 짐 보우덴은 1일 미국 스포츠매체 디에슬레틱을 통해 스토브리그 FA 상위 40명의 행선지와 몸값을 예상했다. 그는 류현진을 전체 35위로 평가하면서 “800만 달러 수준의 1년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보장액보다는 옵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적지 않은 나이와 수술 이력, 구속 문제 등으로 장기 계약을 맺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적합한 팀으로는 원소속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미네소타 트윈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거론했다. 보우덴 칼럼니스트는 “류현진은 올해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고 복귀한 뒤 11경기에 선발 등판해 9경기에서 3실점 이하를 허용하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라며 “6경기에선 5이닝을 던졌고, 한 경기에서 6이닝을 책임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현진의 직구 구속은 시속 87~89마일(약 140~143km)이었고 체인지업 피안타율은 0.276, 컷패스트볼 피안타율 0.238을 기록했다”며 구종별 특징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보우덴 칼럼니스트는 류현진이 2024시즌에



이정후

올해보다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 시즌 토론토에서 마지막 계약 시즌을 보낸 류현진은 지난 달 18일 귀국한 뒤 국내에서 회복 훈련을 하고 있다. 포스팅시스템으로 MLB 진출을 노리는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는 37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보우덴 칼럼니스트는 이정후의 몸값을 ‘예상치 않았음’이라고 평가했으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토론토, 디트로이트 등 많은 구단이 영입전에 뛰어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MLB 스카우트들은 이정후의 타격 능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이들은 이정후가 MLB에 입성한 뒤 곧바로 많은 안타를 칠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어떤 이들은 1~2년 정도의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는 이정후가 타율 0.270의 정도의 성적을 거두는 선수라고 평가하고, 다른 일부는 3할 대 타자라고 여긴다”라고도 했다. 보우덴 칼럼니스트는 이정후의 분야별 능력에 관해서도 평가했다. 그는 “이정후는 콘택트 능력과 선구안이 좋은 선수로 KBO리그에서 삼진보다 볼넷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이정후는 강한 팔을 가진 수준급 중견수다. 점프 능력과 타구를 따라가는 능력이 좋다”며 “이정후는 보폭이 평균보다 길지만 도루 능력은 뛰어나지 않다”고 수비력과 주력에 관해 평가했다. 장타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보우덴 칼럼니스트는 올겨울 FA 전체 1위로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를 꼽았다. 그는 “오타니는 계약기간 10년, 총액 4억7700만 달러(6480억원), 옵션 포함 5억 달러(6792억원) 이상의 대형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체 2위는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 에이스 야마모토 요시노부다. 예상 계약기간은 7년, 몸값은 2억1100만 달러(2866억원)다. /연합뉴스

# 텍사스, 월드시리즈 우승에 1승 남았다

## 코리 시거, PS 6번째 홈런포 애리조나에 11-7 승 3승1패

텍사스 레인저스가 홈런 3방을 앞세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 세 번째 승리를 거뒀다. 텍사스는 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채이스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WS 4차전에서 11-7로 낙승했다. 텍사스는 시리즈 전적 3승 1패를 기록해 장단 첫 WS 우승에 1승만을 남겨뒀다. WS 마지막 경기 가 될 수 있는 5차전은 2일 오전 9시 3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텍사스는 포스트시즌 원정 10연승 진기록도 이어갔다. 텍사스는 지난 달 4일 탬파베이 레이스와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원정경기부터 모든 방문 경기에서 승리하고 있다. 이는 MLB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 아울러 텍사스는 이날 단일 포스트시즌 최다 경기 연속 팀 홈런(15경기) 기록까지 세웠다. 이날 경기 직전만 해도 텍사스 팀 분위기는 침울했다. 베테랑 선발 투수 맥스 셔저와 주포 아들리스 가르시아가 부상으로 낙마했기 때문이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코리 시거(오른쪽)가 1일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2회 2점 홈런을 때리고 홈으로 들어 가며 동료들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결사가 사라졌지만, 텍사스 타선은 여전히 견고하고 강했다. 텍사스 1번 타자로 나선 시미언은 홈런 포함 5타수 2안타 5타점으로 맹활약했고, 2번 타자 시거도

홈런 포함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필필 날랐다. 특히 시거는 이번 WS에서 3개의 홈런을 폭발하는 등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6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연합뉴스

## AI페퍼스 대학생 홍보대사 ‘핫페퍼스’ 8기 20명 모집



광주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오는 26일까지 대학생 홍보대사 ‘핫페퍼스’ 8기 20여 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핫페퍼스’는 지난 2016년 2금융권 첫 대학생 홍보대사단으로 출발했다. 참가자들은 금융권과 스포츠 마케팅 실무, 콘텐츠 제작 등을 체험하게 된다. 8기 핫페퍼스는 AI페퍼스에 특화된 대면·비대면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다음 달 20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활동한다. 참가자들은 배구단을 홍보하고 배구단 전용 모

바일 앱을 채용 콘텐츠를 발굴한다. 광주 홈경기장인 페퍼스타디움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발대식·해단식 등도 치른다. 참가자에게는 매달 소정의 활동비와 홍보대사 수료증을 준다. 우수 활동 조와 개인에게는 상금을 줄 계획이다. 우수 활동자에 뽑히면 페퍼저축은행 인턴십과 채용 우대 혜택을 준다. 페퍼저축은행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비대면 면접을 통해 2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개인이나 5인 이하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I페퍼스와 페퍼저축은행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골프 전설 니클라우스 “4월 이후 골프채 안 잡았다”

사상 최고의 골프 선수로 추앙받는 ‘황금곰’ 잭 니클라우스(미국)가 사실상 골프채를 내려놓는 사실을 공개했다. 1일(한국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니클라우스는 지난 4월 마스터스 대회 시타 이후 한 번도 골프채를 휘둘러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체 2위는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 직전에 1번 홈 타석에서 딱 한 번 드라이버를 휘두르는 행사다. 니클라우스는 캐리 플레이어(남아프리카공화국), 톰 왓슨(미국)과 함께 시타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미국 플로리다주 PGA 내셔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골프 클리닉 때도 그는 클럽을 손에 쥐지 않았다. 그는 언제 다시 골프클럽을 휘두를 예정이냐는 질문에도 확답하지 않았다. 니클라우스는 “아마 다시 골프를 치긴 할 거다. 그런데 너무 공이 안 맞아서 이제 골프가 제

미가 없다. 그리고 집에 골프공도 없다”고 말했다. 농담도 잊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들 나처럼 골프를 치고 싶다고 했다. 이제는 누구든 나처럼 골프를 칠 수 있다”고 말한 그는 “그런데 사실 나는(지금의) 나처럼 골프를 치고 싶지 않다”며 웃었다. 올해 83세인 니클라우스는 그동안 오랜 선수 생활로 얻은 크고 작은 부상 후유증으로 여러 차례 수술대에 오르기도 했다. 2005년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린 디오픈을 마친 뒤 그는 다시는 18홀을 모두 돌아오는 골프 라운드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73승을 포함해 전 세계 각국 투어에서 120여차례 우승해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특히 메이저대회 18회 우승은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불멸의 기록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